

정부, 녹색기술상 제정 활성화 촉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5대 성장동력에 대한 기술대상을 수여함으로써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분야별 최고 녹색기술을 선정해 포상하는 국가녹색기술대상(National Green Tech Award)을 제정기로 했다.

5대 분야의 우수 녹색기술을 선정해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부처별 장관상(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을 시상할 예정이다.

에너지원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 제조·저장, 연료전지, 원자력이,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로는 그린 IT기기, LED(Light Emitting Diode), 2차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등이, 산업·공간 녹색화 기술로는 그린카, 도시재생 등이, 환경보호·자원순환 기술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수질, 친환경 농업, 환경복원 기술이, 무공해 산업경제활동 지원기술로는 CT, 그린 IT서비스 기술 등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자에 대해서는 주관 및 후원기관 등을 통한 홍보기회는 물론 금융·투자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어 기술의 사업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기술대상은 8월27일부터 9월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류검토, 서면평가, 현장심사 및 종합평가를 거쳐 연말 <녹색성장 범국민 보고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8/28>